

장윤정 오고 오승근 뜨고... '트로트의 봄'이 온다



춘삼월 꽃이 피자 트로트도 피어나기 시작했다. 솔직한 가사와 친근한 리듬의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아이돌 음악에 치우쳐졌던 가요계가 풍성해졌다. 금잔디와 오승근, '트로트 퀸' 장윤정(왼쪽부터)이 트로트계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스포츠동아DB·올라엔터테인먼트



가요계 트로트 부활 징후들

장윤정, 1년 공백 닫고 새 앨범 완료
오승근 '내 나이가...' 히트곡 질주
홍진영·금잔디 '트로트 스타' 탄생
"행사보다 대중과 공감 더 고민해야"

트로트가 다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트로트 퀸' 장윤정이 가수로 돌아올 체비를 마쳤고, 세대를 아우르며 불리는 히트곡도 오랜만에 나왔다. 인지도 높은 트로트 스타가 TV에서 맹활약하고, 전도유망한 예비스타가 데뷔를 준비하는 등 좋은 징후가 잇따르고 있어 '트로트의 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 소속사 인우기획의 폐업, 가족법 분쟁, 출산 등으로 1년의 휴식기를 가진 장윤정은 새 앨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공백과 구설을 딛고 일어나 컴백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치는 상황이다. 트로트 팬들도 그만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히트 트로트곡이 나온 것도 트로트 부활을 예감케 한다. 2012년 발표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는 요즘 가장 '핫'한 트로트곡으로 꼽힌다. 장윤정의 '어머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를 잇는 인기 곡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중은 물론 기성가수들도 이 노래로 예능프로그램에서 흥을 돋우고 있다.

'트로트 스타'의 탄생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랑의 배터리'로 사랑받는 홍진영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비롯해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욱 두터운 친근감과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 10년 무명의 설움을 털고 새로운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주목받는 금잔디는 2011년 이후 내놓은 4장의 메들리 앨범 '트롯트 금잔디'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누적 200만장 판매와 돌파를 눈앞에 뒀다. '봉봉'의 이지민, '제2의 장윤정'을 목표로 뛰고 있는 유수현은 주목 받는 신세대 가수로 꼽힌다. 유수현은 트로트 전문 기획사였지만 폐업해 안타까움을 준 전 인우기획의 홍익선 대표에게 재기의 꿈을 주고 있다. 3월 말 데뷔하는 홍자도 기대를 모은다.

1986년생으로 뛰어난 외모까지 갖춘 홍자는 추가열이 데뷔 음반에 참여하는 등 가요계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트로트의 부활은 현재 무르익는 상황. 이를 실제 '트로트의 봄'으로 이어가려면 상업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대중의 애환을 대변하는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트로트계는 조언한다. 금잔디 소속사 올라엔터테인먼트 김태우 대표는 "행사 목적에만 매몰돼 곡을 만들다 보면 폭넓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많은 사람이 즐기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코코엔터 파장...김준호 '1박2일' 하차하나?

배임 혐의 피소 등 법적책임 논란
시청자들 "진실은 무엇인지" 냉망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사태로 인한 파장이 개그맨 김준호(사진)의 출연 프로그램에까지 번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KBS 2TV '1박2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준호에 대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웃는 모습을 마음 편히 보기 어렵다" "하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등 글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벌어진 사태가 이후 3개월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청자가 김준호의 '1박

2일' 출연에 냉담한 반응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김준호는 그동안 코코엔터 사태와 관련해 갖은 논란에 휘말려 왔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도 없다. 때문에 김준호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관해 논하기도 민감한 상황이다. 다만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출연자로서 갖가지 논란으로 오랫동안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습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일부 주주 등과 폭로와 반박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행태는 대중이 바라보는 김준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심지어 사태

초기 코코엔터의 공동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던 것으로 비친 그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코코엔터가 배임 등 혐의로 김준호를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S 예능국 관계자는 9일 "시청자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차와 관련해 언급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1박2일'의 연출자 유호진 PD도 "시청자 반응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아직 법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진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연예뉴스 스테이션

대마초 흡연 수감중인 조덕배, 아내에 이혼소송 당해
대마초 흡연으로 수감 중인 가수 조덕배(56)가 파경 위기에 놓였다. 9일 조덕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부인 A씨가 최근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이혼조정기일은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관계자는 "조덕배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방송인 봄 활동 재개 "다시는 물의없이 열심히 살겠다"



도박 혐의로 1년간의 자숙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방송인 봄(사진)이 "다시는 사회적 물의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봄은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케이틀체널 MBC에브리원 '천생연분 리턴즈' 기자간담회에 진행자로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봄은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너무 크게 느꼈다. 시청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잘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봄의 MC 복귀 모습은 10일 오후 공개된다.

걸그룹 에이핑크 김남주, 이태임 하차 '피과외'에 출연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김남주(사진)가 이태임이 하차한 MBC 예능프로그램 '피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한다. 9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김남주는 10일 제주도에서 첫 촬영을 진행하며, 상대역 이재훈과 함께 해너 체험에 나선다. 김남주는 그동안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MBC 에브리원 '주간아이돌'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숨겨진 입담으로 웃음을 준 바 있다. 한편 이태임은 '피동갑내기 과외하기'에 게스트로 참여한 예원과 육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프로그램에서 2일 하차했다.

SBS '신의 선물' 미서 리메이크...제니퍼 로페즈등 참여

지난해 SBS가 방송한 드라마 '신의 선물'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 미국 제작사 선더보드와 함께 메라이어 캐리, 제니퍼 로페즈, 저스틴 비버 등이 소속된 현지 에이전시 CAA가 제작에 참여한다. 조승우와 이보영이 주연한 '신의 선물'은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 시간여행에 나선 엄마의 이야기. 탄탄한 대본을 쓴 최란 작가가 미국 리메이크작의 프로듀서로 나선다. 이번 리메이크작에는 CAA에 소속된 연기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이병헌 협박' 실형 받은 모델 이모씨·다희 보석 석방

톱스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월11일 이씨와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9일 허가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는 26일 이뤄진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유진하 기자 heja1787@donga.com

임권택·강제규 감독, 나란히 파격 변신

임권택 '화장' 빠른 전개 심리 묘사
강제규 '장수상회' 첫 휴먼드라마
4월 9일 개봉...두 거장 변신 기대



▲임권택 ▲강제규

자신만의 개성으로 국내외에서 폭넓게 인정받은 임권택 감독과 강제규 감독이 4월9일 나란히 새 영화를 내놓는다. 그동안 유지해온 각자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변화를 시도한 두 감독의 출사표에 시선이 쏠린다.

임권택 감독은 '달빛 길어올리기' 이후 6년 만에 '화장'(제작 명필름)을 내놓는다. 죽음을 앞둔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는 중년 남자가 젊은 직장 후배에게 빠져드는 이야기다. 김훈 작가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안성기와 김호정, 김규리가 주연을 맡았다.

앞선 작품들에서 줄곧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임 감독은 '화장'에서는 육망에 휩싸인 남자를 비롯해 다양한 인물의 심리를 속도감 있게 묘사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교차편집도 임 감독이 시도한 변화의 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그는 '최종병기 활' '설국열차'로 감

각을 인정받은 최민영 기사에게 편집을 맡겼다. '태극기 휘날리며'부터 '마이 웨이'까지 한동안 전쟁 서사에 집중해왔던 강제규 감독은 '장수상회'(제작 비피쳐)를 통해 처음으로 휴먼드라마 장르를 연출한다. 많게는 200여원대 제작비의 블록버스터까지 연출했던 그는 이번엔 제작 규모를 대폭 낮춰 30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박근형과 윤여정이 주연한 영화는 특별한 것 없는 일상에서 만난 뜻밖의 사랑으로 삶에 변화를 맞이한 70대의 이야기다. 그동안 격랑에 휘말린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해왔던 강 감독이 그려낼 노년의 잔잔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해리기자 go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yr

'불금' '불일'...안방극장 새 격전지

'나가수3' '정글의 법칙' '삼시세끼'
금요전쟁 속 내달 '프로듀사' 가세
'웃찾사' 일요 방송...'개콘'과 승부

'불금'(불타는 금요일)과 함께 '불일'이 안방극장의 새로운 시청률 격전지로 떠올랐다. 각 방송사가 최근 금요일 밤과 일요일 밤에 킬러콘텐츠를 속속 배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혔던 평일(월~목) 밤 10시대 방송 드라마가 10%대 초반의 시청률에 머무는 '하향평준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탓이다. 이에 각 방송사는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 시청자의 입맛을 당길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요일 밤과 일요일 밤 시간대를 채우며 시청률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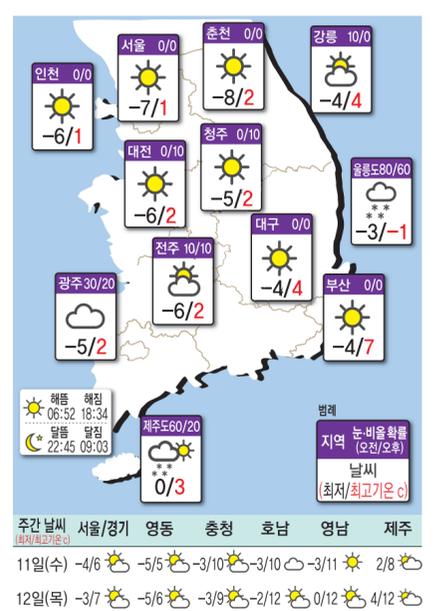
금요일 밤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현재 MBC '나는 가수다3'와 SBS '정글의 법칙', 케이틀체널 tvN '삼시세끼-어촌편' 등이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4월 중순부터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박지은 작가와 KBS 2TV '개그콘서트'(개콘)을 이끈 서순민 PD 그리고 김수현, 차태현, 공효진, 아이유 등 스타급 연기자가 의기투합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프로듀사'까지 경쟁에 뛰어들다. KBS는 6일 종영한 '스파이'에 이어 또 다시 드라마를 편성해 예

능프로그램이 자리 잡은 시간대의 경쟁 체제를 바꾼다는 의지다. tvN도 '삼시세끼-어촌편'에 이어 '꽃보다 할배-그리스편', '삼시세끼-농촌편2' 등 인기 시리즈를 내세워 동시간대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진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금요일 밤 경쟁이 이처럼 뜨거워진 것은 tvN이 지난해부터 방송한 '꽃보다 할배' 등 '꽃보다' 시리즈와 '미생' 등 콘텐츠가 인기를 모은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주 5일제가 정착하면서 방송 콘텐츠와 떨어졌던 시청자가 이런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TV를 시청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요일 밤에는 개그프로그램의 맞불 경쟁이 펼쳐진다. SBS는 22일부터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을 일요일 밤 9시대로 방영 시간을 옮겨 '개콘'에 도전장을 내민다. 하지만 현재 이 시간대는 MBC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2편의 드라마를 잇달아 방송하며 시청률 20~30%로 시청률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개콘'과 '웃찾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BS는 금요일 자정대에 방송하던 '웃찾사'가 '개콘'을 공략할 만한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MBC의 시청률 장악 움직임도 막을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오늘의 날씨



www.sportsdonga.com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1
인쇄인 최병호 스포츠1부 02 2020 1044 2008년 3월 31일 등록번호 서울가-0013호
편집인 이은성 스포츠2부 02 2020 1041 2008년 3월 24일 창간
편집국장 양성동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시청률요령을 준수합니다.
광고국장 이은숙 사인부 02 2020 1068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